

「韓國圖書館史」에 對한 小考

朴 熙 永

筆者는 本誌 1960年 7.8月合併號로 부터 始作하여 1962年 11月號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韓國圖書館史研究 또는 韓國圖書館史研究抄라는 標題로 10회를 繼續하였고 壬辰亂前後, 奎章閣設置直前, 奎章閣創建時代, 19世紀等の 圖書館史資料라는 各標題로서 4회를 掲載하여 結局 合해서 14회를 連載하였다.

그間 貴重한 誌面을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長期間 占有하였음을 甚히 棟懼스럽게 여기는 바 誌上을 通하여 謝過하는 바이다.

本來의 目標은 約 1年間만을 失禮코저 하였고, 內容도 좀더 體系의이고 最近까지를 掲載코저 하였으나, 意外로 길어 졌으므로 一般 19世紀까지로서 連載함을 끝이고 앞으로 그 間의 蒐集 整理된 資料를 土臺로해서 約東한바와 같이 좀더 充實한 單行本으로서 「韓國圖書館史」를 엮고저 하며 그때는 20世紀까지를 包含해서 成册해 보고저 希望하는 바이다.

이미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延世大學校와 梨花女子大學校의 두 大學에 圖書館學科가 設置되어 이미 延大는 2回の 卒業生을 館界 一線에 내보냈으며 不遠 延大는 第3回 梨大는 第1回の 卒業生을 우리 館界는 마지할 것이다. 한편 그間 大學過程의 圖書館學科의 上位인 碩士學位過程의 圖書館學科가 兩大學에 있어서 近 10名이 學位를 得한 事實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圖書館專門職의 養成이라기 보다 우리나라에서의 圖書館學이 學으로서 認定되었다는 事實과 또한 學으로서의 發展을 期約한다는 데에 더욱 큰 意義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日進月步하는 모든 學問의 研究方法의 發展으로 因한 하나의 必然的인 現象과 歸結로서 發生한 圖書館學은 새로운 學問이며 이러한 새로운 學問의 韓國에서의 樹立은 前記 兩大學의 圖書館學科의 設置가 立證하고 있으며, 이러한 見地에서 볼 때 極히 注目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韓國에서의 韓國的인 圖書館學의 開展에 있어서 韓國圖書館史의 研究는 必要한 일이라 하겠으며,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研究라고 思料된다. 여기서 筆者는 淺學非才임을 自處하면서 韓國의 圖書館史가 될 수 있다고 認定되는 資料를 蒐集코저 企圖하여 蒐集된 若干의 資料를 整理하는 段階에서 本誌를 利用하여 19世紀까지를 連載하였으나 韓國圖書館史의 完成은 韓國圖書館學發展에 隨伴되는 하나의 課題라고 하겠다.

어떠한 形態로든 韓國圖書館史는 이룩되어야 하는 이제 研究와 記述의 方法에 있어서 思料되는 點을 述하고저 한다.

첫째로는 圖書館史에서 取扱되어야 하는 範圍가 問題이다.

現代的인 解釋의 圖書館이 있기 以前에도 設立의 目的과 運營의 對象 등이 다르

기는 하나 어떠한 形態와 形式의 圖書館이 存立해 있었음은 사실이다. 그것은 王만이 利用 하는 王을 爲하여 藏書하는 곳이라던가 또는 特定人만이 利用할 수 있는 圖書館의인 施設 등이 있었던 것이 事實이다.

現代의 圖書館과는 그 設立 目的과 運營 등이 判異하기는 하였으나, 如何間 이런 施設과 運營에 있어서 그 成立에는 人件的, 物件的인 二大要素가 必要한 것이다. 人件的인 面은 且置하고 物件的인 面에서 본다면 藏書하는 圖書와 이를 收藏하고 이를 利用할 수 있는 建物이 必要한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館史研究에 있어서 圖書館의 發生과 그 發達の 歷史를 研究하기 前에 圖書館의 三大要素의 하나인 所藏하는 資料의 生産과 그 資料生産에 必要한 機材, 資材의 發達の 歷史研究가 先行되고 圖書館設立과 同時에 並行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圖書館史에서 取扱되어야 하는 範圍 또는 研究해야 할 課題를 例舉하여 본다면

- 1) 資料의 生産과 生産資材 機材의 歷史
- 2) 圖書館設置의 歷史(圖書館의인 機關 包含)
- 3) 資料의 利用, 管理, 運營, 奉仕의 歷史
- 4) 資料의 流出入
- 5) 圖書館의 行政, 財政, 法規의 歷史
- 6) 資料處理(整理)의 技術의 歷史
- 7) 圖書館建築의 歷史
- 8) 圖書館學의 研究의 歷史
- 9) 圖書館員養成의 歷史

- 10) 圖書館員養成教育의 歷史
- 11) 各館種別의 歷史
- 12) 個個圖書館의 歷史
- 13) 圖書館運動과 組織의 歷史
- 14) 藏書家의 研究
- 15) 圖書館學者의 研究(椎名六郎著 圖書館學概論)

等等으로 例舉할 수 있는바 以上 例舉한 各項은 하나 하나가 獨立할 수 있는 것이지만 全體的인 圖書館史에서는 하나도 缺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이 모다 研究되고 綜合되어야 한다. 또한 圖書館史는 社會와 文化나 國家로부터 떠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恒常 文化와 社會를 土臺로 해서 또 文化와 社會를 背景으로 해서 成立되는 것이므로 圖書館의 歷史는 國民文化와 國家社會의 發達과 結付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國民文化와 國家社會의 發展과 歷史를 基盤으로 하는 圖書館史가 되어야 함이 主要한 要件이고 이러한 綜合된 圖書館史가 첫째 課題라고 하겠다.

둘째로는 圖書館史의 記述方法이다.

圖書館史를 一般史나 編年史의 形式을 取한다면 時代區分이 問題가 된다. 그리고 合類史의 形式을 取한다면 前述한바와 같이 例舉된 것을 蒐集된 資料에 依하여 詳述하게 되는 것이다.

圖書館史는 特殊史인 關係로 編年體를 擇하면서 分類體를 加味한 即編年體와 分類體를 合친 形式의 것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記述形式에서 Story式과 論文式의 두 方法이 있는바 用途에 따라 이 記述方法은 어떤 것이던 擇할 수 있다고 본다.

(筆者: 韓國外國語大學圖書館司書長)